



벤처협-서울디지털高, 지역 산업인재 육성 '맞손'

벤처기업협회는 서울디지털대학교와 '협약형 특성하고 육성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서울디지털대학교 박선갑 교장, 벤처기업협회 장구성 혁신인재본부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두산그룹,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 전달

두산그룹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성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왼쪽)과 바보의 나눔 이사장 구요비 주교가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 가운데 일부는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데 쓰인다. /두산그룹



한우자조금, 싱가포르서 한우 가치·경쟁력 알리

한우자조금은 지난달 30일 현지 마리나베이샌즈호텔에서 '2026 싱가포르 한우·한돈 수출 론칭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현지 유통·외식 산업 관계자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우의 다원적 가치와 품질 경쟁력을 알리는 데 초점을 뒀다. '한우 정형 시연 및 설명 프로그램'에서는 벽제갈비 강성호·김용호 조리장이 부위별 특성과 정교한 정형 기술을 시연해 보였다. /한우자조금



NH농협은행,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이재훈 준법감시인 및 본부부서 전 부서장 등 임직원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리원칙에 기반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변함없는 기준! 원리원칙 10계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원리원칙 10계명에는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 근무시간 사적행위 금지, 업무공간 내 올바른 호칭 사용 등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윤리규범이 담겨 있다. /농협은행



우리금융, 설 맞아 '복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우리금융 복(福) 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포장 행사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두번째)과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를 비롯해 우리금융그룹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금융

갤럭시로 개막식 촬영하고 AI 통역으로 22개 언어 소통

삼성전자,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대회 전반 모바일 혁신 기술 선봬
삼성전자 모니터로 비디오 판독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파트너인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모바일 혁신 기술을 통해 선수, 팬, 커뮤니티를 더욱 가깝게 연결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 울트라를 활용한 개막식 생중계 ▲갤럭시 AI 기반 실시간 통역 소통 지원 ▲삼성전자 모니터를 활용한 경기 판독 환경 구축 ▲갤럭시 충전 스테이션 운영 ▲선수·주요 인사·파트너들의 소통 공간 '삼성 하우스' 운영 등 이번 대회 전반에 걸쳐 모바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올림픽방송서비스(OBS)와 협력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식 현장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촬영하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된다.

개막식은 오는 6일 밀라노의 산 시로(San Siro) 스타디움에서 90여 개국



삼성전자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운영하는 삼성 하우스의 모습. /삼성전자

3500여 명의 선수와 7만 5000명 이상의 관중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전 기간 동안 혁신적인 모바일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대회 운영 전반을 뒷받침한다.

이번 대회의 자원봉사자 중 약 850여 명에게는 갤럭시 AI 기반 '통역'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Z 플립7, 갤럭시 Z 플립7 FE 등이 제공돼 선수와 관계자, 방문객 간의 22개 언어 소통을 지원한다.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네트워크

연결 없이 빠르고 직관적 사용이 가능한 통역 기능은 산악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기를 다수 포함한 대회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쇼트트랙 종목에는 삼성전자 모니터를 제공해 심판들이 실시간 비디오 판독을 하며, 경기의 중요한 순간마다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삼성전자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밀라노의 역사적 건축물인 팔라초 세르벨로니에서 '삼성 하우스'를 운영

한다.

삼성 하우스는 초청받은 선수·주요 인사·파트너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들이 만나 교류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30년간의 올림픽 기술 협업 ▲역대 올림픽 에디션·성화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빅토리 프로파일' 등을 전시하고 ▲경기 생중계 관람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삼성 하우스는 금일 공식 개관해 대회 폐막일인 오는 22일까지 운영되고 이어 패럴림픽 기간인 3월 6일부터 15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삼성전자 MX사업부 모바일마케팅센터 최승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올림픽의 모든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람 중심의 올림픽을 열어 가고자 한다"며 "대회를 경험하는 방식이 진화함에 따라 모바일 기술은 선수와 팬, 커뮤니티를 더 가깝게 연결하고 경기의 현장감과 감동, 사람들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 AI대학원, 내달 정식 개학

공식 학위 수여기관 전환 전
마지막 학위수여식 진행

지난해 말 교육부 인가 절차를 끝낸 LG AI대학원이 오는 3월 정식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LG는 지난 3일 서울 마곡 K스퀘어에 위치한 LG AI대학원에서 사내 과정으로 학위 과정을 끝낸 2명의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 AI대학원이 교육부 공식 인가 석·박사 학위 수여 기관으로 전환되기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학위수여식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협업과 학습을 병행하며 AI 역량을 갖춘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난 졸업생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내며, 이제 각자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학습과 실행으로 LG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졸업생인 나영탁 LG전자 AI SW



LG가 3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 AI대학원에서 사내 과정 마지막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LG

플랫폼개발팀 책임연구원과 신윤호 LG유플러스 서비스AI리서치팀 선임은 공식 인가 대학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수료했으며, SCI급 논문 게재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나영탁 LG전자 책임연구원은 AI의 영상 인식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했다.

신윤호 LG유플러스 선임은 비전언어(VL) 모델이 영상 속 인물의 행동을 인지했을 때, 언어모델(LLM)이 직관적인 설명을 생성해 붙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차현정 기자

문체부-콘진원, AI 기반 게임인재 양성

‘게임 인재원 8기 교육생’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분야 실무 인재 양성을 목표로 '게임인재원 8기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게임인재원은 국내 게임 산업에 특화된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기획·프로그래밍·아트 등 전통적인 게임 개발 영역에 더해 AI 기반 게임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

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8기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기반 게임 설계, AI NPC 설계 등 현업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이 확대됐다.

교육 과정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운영하며, 현직 게임 개발자와 AI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특히 실제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팀 단위 실습을 진행해 수료 후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CJ문화재단 ‘20주년 콘서트 시리즈’

20년간 젊은 창작자 성장 지원
‘드림 투 스테이지’로 관객과 만남

CJ문화재단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이달 말부터 5월까지 'CJ문화재단 2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를 개최한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06년 설립돼 CJ가 가장 잘하는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 '튠업(TUNE UP)', 신인 영화 창작자 지원사업 '스토리업(STORY UP)',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 '스테이지업(STAGE UP)'을 중심으로 젊은 창작자를 발굴·지원해 문화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CJ문화재단은 지난 20년간 창작자의 성장을 지원해 온 여정을 관객과 나누고자 '드림 투 스테이지(DREAM TO STAGE)'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CJ문화재단 2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이하 콘서트 시리즈)는 창작자와 관객의 첫 만남이 이뤄졌던 CJ아지트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 시리즈는 '스테이지업: 뮤지컬 갈라 콘서트',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 '스토리업: 킬러 토크'로 구성됐다.

콘서트 시리즈 포문을 여는 '스테이지업: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이틀간 진행되며 '스테이지업'을 통해 발굴된 주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25일에는 뮤지컬 '홍련', '판', '풍월주'가, 26일에는 '여신님이 보고계셔', '아랑가', '로빈'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각 작품 대표 멤버와 함께 작품 개발 과정,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토크 결합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명 뮤지컬 배우가 히든 게스트로 등장한다.

이어서 3월부터 두 달간 '튠업: 라이브 스테이지'가 진행된다. '튠업'을 발판으로 성장해 활약 중인 카더가든, 오존, 조지, 이진아, 홍익석, 최유리 등 총 12팀의 뮤지션이 참여한다. '스토리업: 킬러 토크'에서는 영화, 음악, 문화예술 산업 전반의 이슈를 주제로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담이 마련된다. 3월에는 영화감독 변성현, 배우 설경구가, 4월에는 뮤지션 선우정아, 윤종신, 장기하, 정원영이, 5월에는 성신여대 김진각 교수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 국가보훈부 ◇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김슬기
- ◆ 행정안전부 ◇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 ◆ 한겨레신문사 △ 편집인 겸 미디어본부장 권태호

부음

▲ 임현욱(향년 83세)씨 별세, 김갑선씨 남편상, 임일수(그린엔지니어링 대표)·임천수(스포츠조선 총무판매팀 부장)씨 부친상, 박은란·김지선씨 시부상 = 3일 오후 8시32분,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5일 낮 12시, 장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선영. 031-382-5004